

기화별곡이라



[해제]

<궐화별곡>은 작자는 알 수 없으며, 창작시기는 조선후기로 추정되는 기행가사(紀行歌辭) 작품이다. 기행가사는 작자가 관리(官吏)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도중의 노정(路程)을 노래하거나, 부임지에서의 절경(絶景)을 보고 느낀 감흥과 정취를 표현한 작품이다. 또 조선후기로 가면 유람(遊覽)의 성격을 지니는 작품이 창작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유람의 성격이 나타나므로 창작시기를 조선후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 작품은 모두 18쪽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죽 이어 쓴 줄글 종서(縱書)의 형태이다. 각 쪽은 대체로 질서 있게 8줄씩 순국문으로 필사되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쪽만 7줄로 구성되어 있다. 4음보 1행으로 전체 68행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율격은 3 . 4조와 4 . 4조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춘풍의 요탕하여 유흥을 불너니니”, “동즈롤 불너니야 일호듀 걸너놋코 석양이 거은후의 어풍디 올라가니”, “장인봉”, “옹여봉”, “배학봉”, “백악산”, “비봉산”, “창익로 도르드려 능파딴의 올라가니”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곳곳을 기행(유람)하고 그 곳에서 느낀 감회를 술회하고 있다. 또 작품의 말미에서는 청산녹수간의 이력저력 늙으리라고 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원문]

궐화별곡

궐화별곡이라

이니몸 슬디엄서 명시에 바려시니
스스혀 흥초을 분디로 먹고입고
산후의 누어시니 녹송빅 ㉸㉸㉸
강스니 접이딴고 풍월과 버디되야
시시로 마스후소 세근역욕을 아난듯
모르난듯 추국춘안을 쌈이 완취하니
풍딘의 미존손은 황희소식 전치무소
춘풍의 요탕하여 유흥을 불너니니
청녀장 초즈접고 낙안을 초즈가이
선조의 노던곳의 유디만남 마서르
일천부운의 왕스안모 망헌디 슈둥창송의
취식이 의구하다 초목비감둥이 고석을
초즈하고 동즈롤 불너니야 일호듀
걸너놋코 석양이 거은후의 어풍디
올나가니 두바회 입을버려 우으며
반기난듯 비스탄성은 오열하여 슬피난듯
놉고놉흔 장인봉은 덕용이 완전하고
곱고고흔 옹여봉은 정티를 앓기난듯

봉황이 창계홀데 옥류로 봉올흔ᄃ
어와씨 보천홀제 경천디로 괴오신가
봉황 암만층의 조봉니 념노난듯
빅학봉 제일층의 빅학이 춤추논디
슈련한 빅악손은 천승을 도와섯고
언연흔 비봉손은 원경을 도와잇고
노자포빅 구듀기 고목은 가락오락
와룡 암조담의 세류난 오락가록
빅스 당취예 소연을 갈연난듯
창강 시비에 은황을 흘엇난듯
춘손의 화비하고 추우의 염홍홀데
천조만홍이 금슈로 단장하니 이가온
승경을 다흐기 어려워라 청풍이
속속하야 액을 추이치니 삼청군선을
흐마흐면 보리로드 창이로 도르드려
능파디의 울나가니 무이무곡 처가딘실노
이안이며 동강 칠이탄니 진실노
이아인ᄃ 왕조교황 정경을 강티공
무이돌을 티디하의 더저두고 안석의
영을걸고 세처의 잔을쓰어 산화를
손의잡고 훈두존을 먹은후의 슈동석상의
어연히 누어시나 강흔 물소리난
석경을 듀흐난듯 청파의 썬고기
옥척을 소숫난듯 벅티옥 티둥의
취공이 잠근드니 능파선여와 적벽선옹이
슈정듀을 더면서 박슈흐며 희롱흐디
홍진의 옛손님이 물우히 누어시니
치군획민을 어이흐여 마다흐고 괴암처
스디예 소유버지 되단물고 성군니
바리신ᄃ 현상이 이젓는가 학횡문창이
석선흔 타시련ᄃ 강스디연의 일어부
도엇난ᄃ 일빅 조흐듀로 식회를
취케흐소 청혹흔 소리에 흘련니
씩야보니 신동은 어디ᄃ고 소월리
씨오르니 슈식천광이 한빛치 되여서라
유리세계를 슈국의 움것난듯 치석월경이
이에서 더홀손야 어듀를 지촉하야
디흐로 내려가니 강안의 지난척촉

霖화별곡이라

특등의 씨려디고 스등의 놀닌빅구
빅압히 나라가니 빅천경 물리월야의
더허여럭 강온을 해치고 용암으로
나려가니 기호칠국을 어마로 화답하며
정난을 썩썩쥐고 서방을 바라보니
빅인니 어딴베오 구름이 가려서럭
야월심경 니단후의 슈와로 도라오며
출손곡 입손곡을 좁도이 호스하니
천디에 가득하고 호스의 음죽잇드
디장부 출처를 일가로 의논하라
빅무를 링세하고 선절을 싸로러럭
어와청손 녹슈근의 이령저령 늘그리라

천덕 별곡이라

가노라 옥듀봉아 잇거라
경천디야 요향말 이시리 머다야
언미멀며 북관 일듀연니 오릭다야
허라마난 삼봉손 벌거늑을 처엄으로
드러골제 오연의 분을계워 진세를

[현대역]

개화별곡

개화별곡이라

이내몸 쓸데없어 명시1에 버렸으니
스사혀 초을 분대로 먹고입고
산하2의 누었으니 녹송배 ㉠㉡㉢
강산3이 접이대고 풍월4과 벗이되어
스스로 맞이하소 세간역욕5을 아는듯
모르는듯 추국춘안을 땀이 완취하니
풍진6의 마잔손은 황해소식 전치마소7
춘풍의 요탕하여8 유흥을 불러내니
청려장9 찾아접고 낙안10을 찾아가니
선조의 놀던곳의 유지만남 마서라
일천부운의 왕사안모 망한대 수중창송11의
취색이 의구하다12 초목비감중이 고석을
차자하고 동자를 불러내어 일호주
걸러놓고 석양이 기운후에 어풍대
올라가니 두바위 입을벌려 웃으며
반기는듯 비사탄성은 오염하여 슬피난듯
높고높은 장인봉은 덕용13이 완전하고
굽고고운 옥녀봉14은 정태15를 아끼는듯
봉황이 창계할때 옥주16로 봉올한가
어와씨 보천할때 경천대로 괴오신가17
봉황 암만층의 자봉18이 넘노난듯
배학봉 제일층의 백학이 춤추는데
수련한 백악산은 천승을 도와서고
어연한 비봉산은 원경을 도와있고
노자포백 구주기 고목은 가락오락
와룡 암자담의 세류19는 오락가락
백사 장취에 소연을 갈연난듯
창강 시비에 은황20을 흘렸난듯
춘산의 화비하고 추우의 영홍할때
천자만홍21이 금수22로 단장하니 이가온
승경을 다하기 어려워라 청풍이

속속하여 액을 추이치니 삼청군선을
하마하면 보리로다 창애23로 돌아들어
능파대의 올라가니 무이무곡 처가진실로
이아니며 동강 칠이탄이 진실로
이아닌가 왕자교황 정경을 강태공24의
무이줄을 태지하의 던져두고 안석의
영을걸고 세처의 잔을쓰어 산화25를
손의잡고 한두잔을 먹은후의 수중석상26의
어연히 누었으나 강한 물소리는
석경을 듀하난듯 청파27의 뛰는고기
옥척을 솟았는듯 벽태옥태 중의
취공28이 잠깐드니 능파선녀와 적벽선웅이
수정주를 더면서 박수하며 희롱하데
홍진29의 옛손님이 물위에 누었으니
치군택민을 어이하여 마다하고 괴암처
사대에 소유벗이 되단말고 성군이
바리신가 현상이 잊었는가 학행문창이
석선한 탓이런가 강사지연의 일어부
되었는가 일배 자하주로 새회를
취하게하소 청학한 소리에 출연히30
깨어보니 신동은 어데가고 소월이
떠오르니 수색천광31이 한빛이 되었어라
유리세계를 수국32의 옮겼난듯 채석월경이
이에서 더할소냐 어주33를 재촉하여
대하로 내려가니 강안에 지난척촉
특중의 떨어지고 사중의 놀란백구
배앞에 날아가니 백천경 물리월야의
더하여라 강운을 헤치고 용암으로
내려가니 개호칠국을 어마로 화답하며
정난을 꺾어쥐고 서방을 바라보니
배인이 어데배오 구름이 가렸어라
야월심경이 진후의 수와로 돌아오며
출산곡 입산곡을 잡도이 호사하
천지에 가득하고 호산의 음작있다
대장부 출처를 일가로 의논하라
백무34를 맹세하고 선절을 따르리라
어와 청산녹수35간의 이렇저렇36 늑으리라

靑代別곡이라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靑靑대야 요향말 있으리 머다야37

언매말며38 북관 일주년이 오래다야

하라마는 삼봉산 벌거나을 처엄으로39

들어갈때 오연의 분을계워 진세40를

[각주]

- 1) 명시(明時) : 문명이 발달하여 평화로운 세상.
- 2) 산하(山河) : 산천.
- 3) 강산(江山) : 강과 산이라는 뜻으로, 자연의 경치를 이르는 말.
- 4) 풍월(風月) :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 5) 세간영욕(世間榮辱) : 세간영욕임. 세간(世間)은 세상 일반. 영욕(榮辱)은 영예와 치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6) 풍진(風塵) : 바람에 날리는 티끌.
- 7) 전치마소 : 전하지 마소.
- 8) 춘풍(春風)의 요탕(搖蕩)하여 : 춘풍은 봄바람. 요탕은 요동(搖動). 즉, 봄바람에 흔들임.
- 9) 청려장(靑藜杖) : 명아줏대로 만든 지팡이.
- 10) 낙안(落雁) : 열을 지어 땅으로 내려앉는 기러기.
- 11) 수중창송(樹中蒼松)하다 : 수중은 나무숲 속. 창송은 푸른 소나무.
- 12) 취색(翠色)이 의구(依舊)하다 : 취색은 남색과 파랑색의 중간 빛. 의구는 옛 모양과 다름이 없음.
- 13) 덕용(德容) : 덕기가 있는 얼굴.
- 14) 옥녀봉(玉女峯) : 강원도 고성군과 회양군 사이에 있는 산. 높이는 1,424미터.
- 15) 정태(靜態) :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 16) 옥주(玉柱) : 옥으로 만든 기둥이라는 뜻으로, 궁실의 규모가 크고 화려함을 이르는 말.
- 17) 괴오신가 : 괴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밑을 받쳐 안전하게 함.
- 18) 자봉(雌蜂) : 암벌.
- 19) 세류(細流) :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 또는 가는 흐름.
- 20) 은황(銀黃) : 은과 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1) 천자만홍(千紫萬紅) :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꽃의 빛깔. 또는 그런 빛깔의 꽃.
- 22) 금수(錦繡) : 수를 놓은 비단. 또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나 직물.
- 23) 창해 : 창해(蒼海)임. 푸른 바다.
- 24) 강태공(姜太公) : 중국 주나라 초엽의 조신(朝臣)인 ‘태공망(太公望)’을 그의 성(姓)인 강(姜)과 함께 이르는 말. ‘낙시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5) 산화 : 산하(山河)임. 산천.
- 26) 수중석상(樹中席上) : 수중은 나무숲 속. 석상은 누구와 마주한 자리.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 27) 청파(聽罷) : 듣기를 다 마침. 또는 그런 때.
- 28) 취공(翠空) : 푸른 하늘.
- 29) 홍진(紅塵) : 거마(車馬)가 일으키는 먼지.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0) 홀연(忽然)히 : 뜻밖에 얼씬 나타나거나 사라짐.
- 31) 수색천광(水色天光) : 수색은 물빛. 천광은 맑게 갠 하늘의 빛. 즉, 맑은 물의 빛과 맑게 갠 하늘의 빛을 이룸.
- 32) 수국(水國) : 바다의 세계.
- 33) 어주(魚舟) : 낚싯거루.
- 34) 백무(百無) : 아무것도 없는 것.

- 35) 청산녹수(靑山綠水) : 푸른 산과 푸른 물이라는 뜻으로,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을 이르는 말.
- 36) 이렇저렇 : 이럭저럭.
- 37) 머다야 : 멀다면.
- 38) 언매멀며 : 얼마나 멀며.
- 39) 처엄으로 : 처음으로.
- 40) 진세(塵世) : 티끌세상. 이 세상. 진계(塵界). 속세(俗世) 등을 이룸.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